



건강한 골프존 골프하고 일도 하고

“나이스 샷” 골프공 날아가는 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곳은 골프존 내에 있는 스크린 골프 시설 앞이다. 여느 회사 점심시간에 볼 수 없는 풍경으로 골프존 직원들은 12시부터 2시까지의 점심시간 중 한 시간은 회사에 설치된 5대의 스크린 골프 시설을 즐기며 골프연습을 할 수 있다. 지난 3월 9일 삼성동에 위치한 골프존을 찾았다.

출근해 조식 먹고, 퇴근 후에는 스크린 골프 연습을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 전문업체다. 골프존 직원이라면 골프와 친할 수밖에 없다.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골프 교육을 지원하고 새싹라운딩, 골프 전지훈련을 통해 골프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그래서 직원들의 자리마다 커다란 골프백이 자리한다. 직원들은 이른 새벽, 점심시간, 퇴근 후 사내에 설치된 스크린 골프를 통해 실력 향상에 힘쓴다고. 실제로 여성 직원은 110타, 남성 직원은 100타 미만으로 실력이 향상되면 김영찬 대표와 함께 필드 위로 나갈 수 있다.

골프존은 그 외에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과 함께 자궁경부암, A형 간염,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사내 층마다 설치된 카페테리아는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카페테리아에서는 배즙, 사과즙, 양파즙을 비롯한 건강음료와 간식을 제공한다. 또한, 아침에는 조식이 제공된다. 홍보팀 김지영 대리는 “샌드위치, 죽, 김밥 등의 조식 제공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원도 아침을 거르는 일이 없어요.”라고 전한다. 그 외, 사내 직원들의 친목과 의미 있는 회사 생활을 위해 동호회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미 사내에는 건강을 위한 골프, 요가 동호회 외에도 피규어, 사진, 직장인 밴드 등 취미생활을 위한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사내에 전시된 사진 동호회의 작품은 전문 사진작가의 작품에 뒤지지 않는 수준을 자랑한다.

골프 라운딩, 건강은 물론 업무 아이디어까지

‘싱글골퍼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골프 연습에 매진하는 동호회 ‘싱글골퍼를 향하여’를 만났다. 4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싱글골퍼를 향하여’는 사내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연습하고 한 달에 한 번 필드에서 실전연습을 한다고. 시원시원하게 샷을 날리는 모습이 모두 숙련된 골퍼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싱글골퍼를 향하여’ 회원 대부분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골프를 배운 사람들이다.

‘싱글골퍼를 향하여’ 회장 신치훈 부동산담당 과장은 “회사에 입사해서 골프를 처음 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골프를 배우니 건강까지 덩달아 좋아지고 있어요. 현재는 골프를 잘 치기 위해 하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다닙니다. 덕분에 근력도 좋아지고, 골프 비거리도 늘었어요.”라고 말한다.

김지근 회계팀 과장은 “골프는 4명이 라운드 위에서 함께 즐기는 스포츠인 덕에 회원들과 친목 도모를 할 수 있어요. 자연에서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정신건강에도 좋지요.”라고 말한다.

‘싱글골퍼를 향하여’ 회원들은 골프의 장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또한, 스크린 골프 전문 회사인 만큼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정희 기획팀 사원은 “라운드 위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챙깁니다.”라며 웃는다.

싱글골퍼가 되면 동호회에서 자동적으로 탈퇴가 된다는 동호회 회원들의 목표는 모두 싱글골퍼가 되는 것이다. MEDICHECK

